

중·노년기 은퇴자의 은퇴 전후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Social Network Changes of pre- and post- Retirement

박현춘*, 홍진혁*, 최민재**, 권영대***, 김진석****, 노진원*

음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의료경영연구소***,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unchun Park(syonghamo@naver.com)*, Jin Hyuk Hong(balbali333@naver.com)*,
Minjae Choi(stefonchoi@gmail.com)**, Young Dae Kwon(snukyd1@naver.com)***,
Jinseok Kim(jskim@swu.ac.kr)****, Jin-Won Noh(jinwon.noh@gmail.com)*

요약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은퇴 후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8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5세 이상의 은퇴자 1,569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STATA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퇴자의 개인적 특성과 은퇴여부가 사회적관계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Panel logit model과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방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여부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panel logit model과 fixed effects model의 within 추정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특성에서는 친한 사람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 기능적 특성인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는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지원이 더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을 변화를 확인 하였으며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의 시작과 맞물린 현실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사회적 관계망 | 은퇴 | 사회적 관계 |

Abstract

After retirement, retirees are exposed to many changes. Bu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retirement is Social network. Social network is making various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This consists of functional feature and structure feature. This study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social network changes of pre- and post-retirement by using two features.

We utilized 2008~2012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selected 1,569 retirees above 45 years old as a final subject. This study used STATA 12.0 program for analysing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 At first, we analyze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ffecting factor on social network of retirees through Panel logit model and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 Second, we applied multiple panel logit model and fixed effects model to learn factor affecting employment and social network changes.

We found that a number of social activities affects social network in the structure feature and support from sons and daughters also influences social network in the functional feature after retirement.

■ keyword : | Social Network | Retirement | Social Relationship |

I. 서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89만명[1]으로 전체 인구의 10%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인 고령화 사회는 이미 2000년도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1].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여명은 81세이다[2]. 그에 반해 경제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여파와 잦은 이직 및 조기퇴직의 증가로 은퇴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은 OECD국가들의 평균 65세에 비해 낮은 56세이다[3]. 은퇴 이후의 삶이 평균수명의 약 30%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은퇴를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권문일[4]은 은퇴를 4가지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첫째로, 스스로 은퇴자로 선언하는 것이다. Parnes, Adams, Andrisani, Kohen와 Nestel[5]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은퇴를 정의하였다. 둘째, 임금수준 혹은 노동시간이 빠르게 축소되는 시점이다. 이는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정의이다. 국외에서는 임금 혹은 노동시간이 어느 수준 이하인 경우를 은퇴로 간주하기도 한다[6]. 예를 들어, Burtless과 Moffitt[6]은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을 은퇴자로 정의하였으며, Parnes과 Nestel[7]은 연 100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은퇴자로 규정하였다. 홍성희[8]은 은퇴를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직업활동 혹은 생산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였다. 셋째, 가장 오랫동안 일한 주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을 은퇴라고 정의하였다. 소일거리를 하더라도 주된 직업수행을 중단하면 은퇴라고 규정하였다[9]. 넷째, 연금을 수급 받는 시점으로 은퇴를 정의하였다. 기업연금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시점을 은퇴시점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외에도 송근배[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은퇴는 노년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는 은퇴자를 고령자로 간주하는 것인데 고령자와 은퇴자의 소비행태와 소득이 차이가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정순돌 외 [12]의 연구에서 정의한 은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정순돌 외[12]의 연구에서는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에서 규정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소득활동을 멈추고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장생활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은퇴란, '주요 무대에서의 퇴장'이며 곧 일상생활에서의 중심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혹은 부양자로서 권위와 지위를 잃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13].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왕성할수록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성욱과 서훈의 연구[14]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교류가 왕성할수록 은퇴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은퇴만족도 또한 낮았다. 또 다른 연구[15-17]에서는 은퇴자는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사회활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중·고령자가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이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 구축은 부족한 실정이다[18][19]. 이로 인해 은퇴자는 점점 더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이동할 것이며 사회적 역할 또한 감소하여 만족스러운 은퇴 후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은퇴는 모두가 경험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므로 은퇴 후에 발생하는 변화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활동을 경험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활동의 증추적 역할인 직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20]. 사회적관계망은 은퇴자의 은퇴 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2]. Aartsen[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개인을 중심으로 대인접촉과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친구 그리고 조직구성원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크게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22-24]. 구조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형태와 연결 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측정은 접촉빈도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등으로 한다. 크기는 구성원 수이며, 접촉빈도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를 나타낸다[25-27]. 반면, 기능적 특성은 사회적 관계망이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관계망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다[21][28].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관계망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관계와 동거 여부, 사회활동, 친구접촉빈도, 배우자 유무 등 구조적인 측면에 치우쳐 제한된 측면에서 실시되었으며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29-3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조적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 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모든 측면을 은퇴 전·후의 변화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사회적관계망에 대한 후속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은퇴자 및 노인 복지 및 노인인구정책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며, 2008년도는 8,688명, 2010년도 7,920명, 2012년도 7,486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노트북을 이용한 대인면접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이 사용되었다. 조사 항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 은퇴자를 선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2008년도 조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대상자 중,

2010년도 조사나, 2012년도 조사에서 은퇴를 했다고 대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도 조사에서 은퇴를 하였다고 대답한 사람 중 2012년도 조사에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 후 총 1,56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의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구조적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근접 거주 자녀 유무, 친한 사람 접촉 빈도,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이용하였고, 기능적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를 이용하였다.

(1) 근접 거주 자녀 유무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열 번째 자녀까지의 거주상황에 대해 지리적 근접성을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문항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30분 이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 근접 거주 자녀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2)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

모든 자녀에 대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인 금전적 지원과 선물이나 여행과 같은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받았는지를 묻고,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가 한 개 이상일 경우 1, 한 개도 없을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3) 친한 사람 접촉 빈도

친한 사람 접촉 빈도는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에서 친밀하게 접촉한 빈도이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을 0으로, 그 외 ‘1’부터 ‘9’까지의 응답범주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남의 빈도가 높게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4) 사회활동 참여 정도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를 모두 합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은퇴 여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고용, 자영업, 가족 및 친인척 지원 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서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고용 상태라고 보았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 중 ‘_____님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상태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문항에서 ‘은퇴하였다(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은퇴한 사람으로 보았다.

(2) 인구·사회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인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나이, 성별, 학력, 자녀 수, 결혼상태, 건강보험, 우울 정도, 인지기능 정도를 파악하였다. 나이는 40대·50대·60대·70대 이상으로 구분, 학력은 초졸·중졸·고졸·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자와 미혼자(이혼, 사별 포함)로 구분하였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였다. 우울증의 정도는 CES-D 10(the 10-item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hort Depression Scale : CES-D 10)을 사용한 측정값을 이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 10은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의 간이형으로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우울증후군(depressive symptomatology)을 확인할 수 있다. CES-D 10은 지난 한 주 동안 특정 증상을 경험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게나올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3]. 총 10개 설문문항에서 있다/없다에 각각 ‘1점’과 ‘0점’을 부여한 후 모두 더한 값이 4점 이상이면 우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6]. 인지기능 정도는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 MMSE-K)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MMSE는 인지기능 장애 측정도구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용의 용이성과 간편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34]. 박종환과 권용철[35]이 우리나라 노인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여 MMSE-K 도구를 개발하였다.

MMSE-K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10점), 기억등록(3점), 기억회상(3점), 주의 집중 및 계산(5점), 언어 기능(7점), 이해 및 판단(2점) 영역의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유무에 따라 교정점수를 부여하여 최고점수는 30점이고, 24점 이상을 정상으로 판단한다[36].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계수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산출하였다. 은퇴 여부와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관련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panel logit model과 fixed effects model의 within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변수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multiple panel logit model과 fixed effects model의 within추정 방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TATA 12.0 Version 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 중 근접자녀 유무와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프로비트(probit) 이나 로짓(logit)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 중 친한 사람 접촉 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오차항(ui)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아닌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 중 within 추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변수의 과거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를 파악하여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는 패널로짓 모형으로,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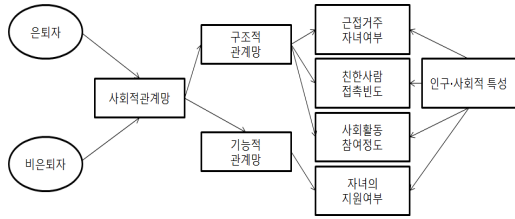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1,569명으로, [표 1]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2008년을 기준으로 40대가 19.2%, 50대가 48.1% 60대가 24.5%로 은퇴를 할 시기인 50대~60대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은 남자 63.3%, 여자 36.7%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은 고졸이 41.2%로 가장 높았다. 평균 2.46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91.4%의 연구대상자들이 배우자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91.4%였다. 우울증 정도를 나타내는 CES-D 10 점수는 평균 2.73점이었고 인지기능 점수는 25.84점이었다.

각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10보다 적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N(%)/Mean ±SD(Min, Max) (n=1,559)
나이	40대	301(19.2)
	50대	754(48.1)
	60대	385(24.5)
	70대 이상	129(8.2)
성별	남자	993(63.3)
	여자	576(36.7)
학력	초졸	382(24.3)
	중졸	277(17.7)
	고졸	647(41.2)
	대졸 이상(대졸, 대학원졸)	263(16.8)
자녀수		2.46±1.07(1, 8)
결혼 상태	기혼	1434(91.4)
	미혼(사별, 이혼, 미혼)	135(8.6)
건강보험	건강보험	1550(98.8)

	의료급여	19(1.2)
CES-D 10		2.73±2.59(0, 10)
인지기능점수		25.84±5.47(0, 30)

2.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은퇴 여부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은퇴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대상자 1,559명 중, 2010년에는 124명이 은퇴를 하였고 2012년에는 131명이 추가로 은퇴를 하였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연도별 은퇴 여부

(단위: 명)

	2008년	2010년	2012년
일을 하고 있음	1,559	1,445	1,314
2010년 은퇴자	0	124	124
2012년 은퇴자	0	0	131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은퇴 여부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개인별 특성 및 은퇴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근접자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근접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성별이 남성일수록, 비은퇴자 일수록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친한 사람을 만나는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은퇴를 한 사람이 비은퇴자보다 친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적었고, 인지기능 점수가 높아질수록 친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많았다. 사회활동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은퇴를 할수록, 나이가 늘어날수록,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적었으며, 인지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은퇴변수의 과거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을 파악하여 사회적관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자가 비은퇴자보다 은퇴한 다음 년도에 자녀

표 3. Panel logit과 fixed effect 추정을 이용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

	근접자녀 유무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		친한 사람 만나는 횟수		사회활동참여 정도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나이								
40대	ref		ref		ref		ref	
50대 이상	0.306	0.167	-0.211***	0.102	-0.031	0.072	-0.068**	0.024
성별								
남자	ref		ref		ref		ref	
여자	0.130***	0.055	0.311*	0.022	0.029	0.024	-0.057*	0.008
학력								
초졸	ref		ref		ref		ref	
중졸 이상	-0.331	1.057	-0.480	0.693	-0.179	0.175	0.071	0.073
자녀수	0.148	0.661	0.421	0.563	0.929	0.511	0.143	0.216
결혼 상태								
결혼	ref		ref		ref		ref	
미혼	0.231	0.589	-0.438	0.475	-0.114	0.284	-0.071	0.122
건강보험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42	0.178	-0.036	0.096	-0.067	0.078	-0.007	0.027
CES-D 10	-0.047	0.033	-0.007	0.020	-0.027	0.015	-0.010	0.005
인지기능점수	0.009	0.013	-0.012	0.008	0.014***	0.006	0.008*	0.002
은퇴 여부								
은퇴	ref		ref		ref		ref	
비은퇴	-0.389	0.258	-0.831*	0.185	-0.343**	0.140	-0.114**	0.045
과거 은퇴 여부								
은퇴	ref		ref		ref		ref	
비은퇴	0.564	0.399	0.542***	0.244	-0.076	0.136	-1.000***	0.047

*p>0.001 **p>0.01 *** p>0.05

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비은퇴자가 은퇴자보다 은퇴한 다음 년도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표 3].

4. 은퇴여부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은퇴여부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confounding factor를 통제한 후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별 특성 및 은퇴 여부를 독립변수로 multiple panel logit model과 fixed effects model의 within추정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은퇴여부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비은퇴자일수록 친한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았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았고,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른 변수들이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은 [표 3]에서 기술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표 4].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은퇴 전·후의 사회적 관계망을 비교하여 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를 확인하고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관계망에서는 근접거주 자녀 유무는 은퇴여부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친한 사람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은퇴여부와 관계에서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친한 사람 접촉빈도가 낮아지고,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 기능적 관계망인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는 은퇴자가 비은퇴자에 비해 지원이 더 적었다. 그리고 은퇴가 은퇴 직후의 사회적관계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사회활동 참여 정도는 비은퇴자가 은퇴자보다 은퇴한 다음 년도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12]에서 사회활동 정도는 은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표 4. Multiple panel logit과 fixed effect 추정을 이용한 은퇴 여부가 사회적 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근접자녀 유무		자녀로부터의 지원 유무		친한 사람 만나는 횟수		사회활동참여 정도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나이								
40대	ref		ref		ref		ref	
50대 이상	0.419***	0.176	-0.128	0.105	0.013	0.075	-0.055***	0.027
성별								
남자	ref		ref		ref		ref	
여자	-3.285	209.37	3.644	276.80	-0.213	0.273	-0.175	0.094
학력								
초졸	ref		ref		ref		ref	
중졸 이상	-0.425	1.120	-0.369	0.700	-0.161	0.192	0.083	0.072
자녀수	0.145	0.675	0.383	0.568	0.881	0.508	0.129	0.208
결혼 상태								
결혼	ref		ref		ref		ref	
미혼	0.149	0.608	-0.324	0.489	-0.152	0.300	-0.073	0.119
건강보험								
건강보험	ref		ref		ref		ref	
의료급여	-0.055	0.178	-0.017	0.098	-0.047	0.078	0.004	0.027
CES-D 10	-0.056	0.034	-0.008	0.021	-0.024	0.015	-0.008	0.005
인지기능점수	0.007	0.013	-0.014	0.008	0.013***	0.006	0.007**	0.002
은퇴 여부								
은퇴	ref		ref		ref		ref	
비은퇴	-0.573***	0.269	-0.779*	0.189	-0.314***	0.144	-0.092***	0.045
Prob > F(chi ²)	0.2180		0.0006		0.0489		0.0017	

*p)0.001 **p)0.01 *** p)0.05

노인의 건강관리와 재무적인 측면이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킨 선행연구[3][30][38]와 달리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은퇴 여부가 사회활동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정순돌 외[12]의 연구와 같이 은퇴 후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은퇴 전부터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생활 등을 찾고 흥미를 이끌어내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친한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지는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은퇴 직후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히려 사회와의 교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38].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39]에서 우리나라 노인 중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한 비율은 약 55%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노인이 약 14%, 자녀와 살고 싶다고 답한 노인이 약 27.6%로 은퇴

이후에 자녀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약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비은퇴자에 비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과 같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자의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2]. 기존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은퇴 직후 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건강과 재산의 수준이 아닌 '사회적 유대관계의 폭'이라는 결과를 규명했다[40]. 이는 은퇴 이후 개인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과 직장이라는 조직을 벗어난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의 조화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치 부여가 은퇴 이후 사회에 대한 적응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41]. 즉 사회적 관계망은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서 사회 환경 적응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26]. 현대 노인들의 경우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와

신체적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적으로 핵가족 문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26].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은퇴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이 2년 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은퇴 직후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알 수 없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지속적인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짧은 관찰기간이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 요인들을 알아볼 때 정기적인 지원과 같은 은퇴 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와 비정기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같은 지원유무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은퇴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그러나 짧은 관찰기간과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구조적 관계망인 친한 사람 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정도의 감소와 기능적 관계망인 자녀로부터의 지원 또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퇴 전후 여부를 떠나 은퇴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요인을 확인하였다.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42].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은퇴자들의 사회적관계망 확대 정책을 포괄적이 아닌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구분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노인의 사회적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사회적 관심 및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2] 통계청,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 10135호*, 2013.

[3] 김경연, 정여진, "건강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탐색", *노인복지연구*, 제34권, pp.31-54, 2006.

[4] 권문일, *노인의 퇴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5] H. S. Parnes, A. V. Adams, P. Andrisani, A. I. Kohen, and G. Nestel, *The Preretirement Years: Five Years in the Work Lives of Middle Aged Men*, Vol.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6] G. Burtless and M. Robert,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NY: Washington Brookings, 1984.

[7] H. Parnes and G. Nestel, "Middle-aged change. in Parnes, H. S. A. V. Adams, P. Andrisani, A.I. Kohen, and G. Nestel, *The Preretirement Years: Five Years in the Work Lives of Middle Aged Men*,"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pp.79-114, 1974.

[8] 홍성희, 관인숙,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pp.291-307, 2007.

[9] C. Kupperbush, R. W. Levenson, and R. Ebling, "Predicting husbands' and wives' retirement satisfaction from the emotional qualities of martial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Vol.20, No.3, p.335, 2003.

[10] 송근배, 정성화, 정선영, 박용덕, 권호근, 최연희, "우리나라 개원치과의사들의 은퇴 및 노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39-149, 2010.

[11] 윤재호, 김현정,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제17권, 제1호, 2011.

[12] 정순돌, 문진영, 김성원, "고령은퇴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은퇴만족도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 pp.1145-1161, 2010.

[13] 임선영, 김태현, "노년기 부부 스트레스와 결혼 불안정성",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 pp.111-128, 2002.
- [14] 조성욱, 서훈,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4권, pp.211-235, 2011.
- [15] L. L. Carstensen,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Vol.7, pp.331-338, 1992.
- [16] L. L. Carstensen, *Motivation for social contact across the life span: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pp.209-254, 1993.
- [17] 김동배, 김상범, 신수민,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289-303, 2012.
- [18] 지은정,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135-168, 2006.
- [19] S. H. James, "The evolving concept of retirement: Looking forward to the year 2050",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55, No.1, pp.85-105, 2002.
- [20] 김지경, 송현주, "조기은퇴남성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7권, 제3호, pp.31-43, 2009.
- [21] M. Aartsen, Van Tilburg, H. M. Smits, and K. Kinsch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physical and cognitive decline on the personal network in old 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1, No.2, pp.250-266, 2004.
- [22] 서선희, 임희경, "농촌 노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4권, 제1호, pp.179-203, 2004.
- [23] 오인근, 오영삼, 김영일,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1호, pp.113-136, 2009.
- [24] T. C. Antonucci,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and social behavior*. In E. Shanas & R. J. Binstock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94-129, 1985.
- [25] 강성희, *도시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6] 김수현, 강현정, 김윤정,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pp.51-71, 2008.
- [27] 손장권, 조용하, "부산지역 노인의 사회활동, 사회관계 그리고 생애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제6권, 제2호, pp.5-39, 2005.
- [28] P. O'Reill, "Methodlogical issues in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researc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26, pp.863-873, 1998.
- [29] 김지경, 송현주,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경과기관별 은퇴생활적응의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6호, pp.83-101, 2010.
- [30] 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임지영, "고령은퇴남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253-280, 2009.
- [31] 이승원, 김동배, 이주영,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 제12권, 제1호, pp.107-125, 2008.
- [32] 최성수, 이가람, 이성민,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8권, 제2호, pp.291-307, 2008.
- [33] 안지연, 탁영란, "관절염 노인의 연령별 우울 정도와 위험요인",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1호, pp.72-83, 2009.
- [34] 임양진, *일부 노인의 인지 및 정서 기능과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35] 박종환, 권용철, "노인용 한국판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의 표준화연구: 제

2편, 구분점 및 진단적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제 28권, 제3호, pp.508-513, 1989.

- [36] 황종남, 권순만,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971-986, 2009.
- [37] 민인식, 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2012.
- [38] 손신영,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99-107, 2009.
- [39] 보건복지부, *2011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12.
- [40] M. Anthony, *The new retirementality*, New Jersey: John Willy and Sons, 2004.
- [41] 김효신, “노후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제22권, pp.113-128, 1993.
- [42] 김남희, 최수일, “여성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41-252, 2011.

저 자 소 개

박 현 춘(Hyunchun Park)

준회원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 2013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정책, 보건통계

홍 진 혁(Jin Hyuk Hong)

준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관심분야> : 의료경영, 보건정책, 보건통계

최 민 재(Minjae Choi)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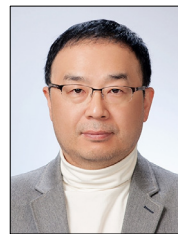


- 2014년 2월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보건학사)
- 2014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보건경제, 의료경영, 보건정책

권 영 대(Young Dae Kwon)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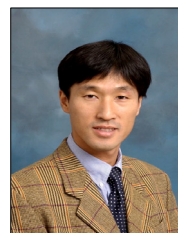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의학과(의학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의학과(의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의 질 평가, 의료이용분석

김 진 석(Jinseok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이학석사)
- 2001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SSW)

▪ 2004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Ph.D)

▪ 2009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발달, 지역사회 요인분석,
지역사회 복지

노진원(Jin-Won Noh)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 경영학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생산관리) 석사
- 2008년 8월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협동과정(보건학박사)

- 2011년 12월 : Johns Hopkins University MPH, MBA
- 2012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병원경영, 의료경제성평가, 병원재무회계